

##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으로 비료업계 위기 고조

### - 중국 내수 급증 및 중동지역 공장가동 중단 등 영향 -

-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아 비료업계는 일부 비종 가동중단 및 막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.
- 최근 중국의 내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요소 스팟물량(특정시점 계약) 조사 및 미국·EU 등 서방국가의 벨라루스 염화칼륨 수출제재 조치 등으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.
  - 7월 1일 기준 지난 연말대비 요소 72%, 암모니아 120%, 염화칼륨 42% 급등했다.
  - 요소는 중국의 비료생산 감소와 내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스팟물량 조사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여 지난해 연말 274\$/톤에서 7월 1일 현재 470\$/톤으로 72% 폭등했다.
    - 중국은 주요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제조업에 부담이 되자 가격 상승 억제에 적극나섰고, 농업용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인상 담합 등 엄중 단속하고 있다.
  - 암모니아는 중동지역 공장가동 중단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 297\$/톤에서 7월 1일 기준 653\$/톤으로 120% 폭등하였다.
  - 염화칼륨은 북미·남미의 지속적 수요증가와 염화칼륨이 주 수입원인 벨라루스의 수출제재 조치로 수급 불안정이 커지면서 지난해 235\$/톤에서 7월 1일 현재 333\$/톤으로 42%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.

## 농정 동향/주요 이슈

2021. 7. 6.(화)

- 우리나라는 염화칼륨 연간 수입량의 15~21%를 벨라루스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출 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.
- 비료업체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선박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료 재고가 급격히 줄어 추비 등 비료 공급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.
- 봄철 성수기에 이은 추비 수요에 요소와 염화칼륨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.
  - 올 6월말까지 농업용 요소와 맞춤형비료 공급량은 전년대비 2%, 13% 각각 감소했다.
- 무기질비료 6개 생산업체는 올해 4월초부터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비료 납품처인 농협중앙회에 계약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.
- 비료업체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상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으면 올해 500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로 업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.
- 농가도 농산물 생산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비료업체 생존권 차원에서 농가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의 조속한 비료가격 조정이 시급하다.